

다양한 건축문화의 전개와 주거환경의 미래상

손 세 관*

1. 서론: 다양한 건축문화의 전개와 예측불가능한 미래

21세기의 시작을 4년 남짓 남겨두고 있다. 텔레비전과 신문을 위시한 여러 대중매체에서는 사라져가는 세기말과 다가오는 21세기 초반을 두고 '대전환의 시대' 또는 '대변혁의 시대'라고 규정지으면서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양식의 전반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전환하여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개되는 건축의 현상을 바라보면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미래에 우리의 생활이 어떤 환경속에 담기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세기말의 건축적 양상은 그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혼잡하고 복잡하기만 하다. 80년대 포스트모던 건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이후 해체주의 건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몇년의 시기에는 혼잡한 가운데서도 건축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보였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논의의 주제가 희박해져가면서 논리적 중심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하나의 이즘(ism)이 등장하면 그것의 본질이 완전하게 이해되어서 한 문화권 속에 정착하기 전에 다른 문화권에서 성급하게 모방되고 왜곡되어 다양한 아류를 낳게되면서 건축의 양상은 더욱 혼잡하게 되어버렸다. 가지각색의 것이 혼재하는 잡종의 현상은 더욱 강한 혼재의 현상을 정당화시켜주면서 다가올 미래를 가늠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현상의 각각이 한편으로는 과

학적 합리주의나 인식적 허무주의로 무장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문화가 가지는 다양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가치의 판단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다가오는 잡종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새로운 시기를 준비하는 오늘에 있어서 도 대체 건축은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고 판단되어야 하는가? 또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특히 주거건축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새로운 시기를 대비하는 건축전문가 집단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할 것인가가 21세기 건축문화의 전개를 앞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주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2. 21세기 건축문화의 표상으로서의 주거건축

각 시대나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의 형식을 하나씩 골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고대의 건축은 신전으로 대표되고, 중세의 건축은 교회로 대표되고, 르네상스 이후의 근세건축은 궁전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는 무엇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을까? 근대건축 즉 20세기의 건축은 주택으로 대표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근대건축은 인간의 주거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근대건축의 본질이 기술과 기능적 합리주의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의 목적은 결국 위생적 측면에서의 주거의 수준향상과 주택의 양적확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건축이론 등이 주로 상업건축과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건

*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건축적인 실험을 전개해왔다고 한다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그 대상이 다시 주택으로 바뀔 것이다. 다만 20세기에 전개되었던 주거에 대한 생산의 확대나 양적인 증대보다는 주거의 질적 향상과 인간적 요구에 부합되는 수준높은 주거환경의 조성이 21세기 건축문화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택은 항상 건축적 사고(思考)의 원점(原點)으로 인식되어 왔다. '주택은 도시이고 도시는 주택이다'라는 알베르티(Alberti)의 논리로라면 주택은 도시구성의 기본적 단위가 되면서 동시에 모든 도시적 기능이 함축된 작은 복합체라고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건축에 주거의 성격이 함축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호텔은 주택을 기능적으로 확대한 것이고 대규모의 오피스, 역사(驛舍), 공항 등도 주거를 개념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건축 속에는 주택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르 코르뷔제든 라이트든 또는 루이스 칸이든 근대건축의 주역들은 그들 건축의 원초적 출발점을 주택에 두어왔다. 근대건축의 근원적인 출발선에는 로지에(A. Laugier)의 '원시오두막(primitive hut)' 개념이 있었고, 이후 르 코르뷔제의 도미노(Domino) 시스템과 집합주택 위니테(Unite d'Habitation) 그리고 미스의 판스워스(Farnsworth) 주택이 있었다. 이 모두가 근대건축의 원형적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 속에는 모더니즘 건축의 본질이 함축되어 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주택이라기 보다는 주택이라는 이름을 빌린 모더니즘 건축의 원형적 공간이었다. 즉 근대의 건축가들은 주택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근대성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21세기의 건축 특히 주거건축을 향한 새로운 해법도 이런 원형적인 사고를 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말하자면 21세기 건축적 사고의 출발점을 주거에다 두고 그 형식

적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3. 21세기의 주거건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전제

원점에서 출발하는 건축 즉 원형적 사고를 가지는 건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특히 주거건축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건축에 있어서의 원형적인 사고는 과거 근대건축의 태동기에서처럼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전형(典型)을 만들어내려는 보편주의의 관점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것은 미래에 전개될 생활양식의 변화와 사회적인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인간생활과 그것을 담는 건축환경의 본질적인 가치를 모색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래의 주거환경이 그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 다양화하고 다원화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는 현상이다. 급격하게 변모하는 사회여건의 변화는 주거생활의 양식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활양식의 변화는 즉물적으로 어느 하나의 생활양식에서부터 이와는 차별적인 다른 양식으로 급작스럽게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생활양식에 대한 반작용적인 생활양식이 출현하면서 이것이 기존의 생활양식과 병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서로 흡수되고 조정되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발전과정을 취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각의 생활양식은 서로간에 대립하면서 하나의 양식이 주도적인 것으로 대체된다는 개념보다는 변증법적인 관계구조속에서 서로 병존해 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생활양식은 어느 한가지의 주도적인 생활양식이 사회전반을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생활양식이 출현하고, 이들이 세부적으로 분화되면서 서로 병존해가는 양상을 가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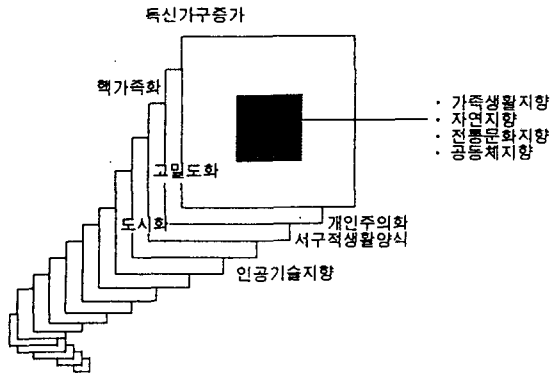


그림1. 미래 주거공간의 본질적인 발전의 모습
(자료출처: 미래 주거공간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인석)

미래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날 것이나 생활양식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문화적인 패러다임은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의 상호작용의 결과 여러 가지 생활행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활양식의 다원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래의 생활양식은 실용화와 합리화, 그리고 다양화와 개성중시의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주거생활에서 갖는 본질적인 가치욕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이것이 주거생활과 주거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양식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고유한 가치가 기술진전에 수반하여 그 발전의 폭을 넓혀가는 무한한 발전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생활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들 즉 가족생활에 대한 지향, 자연지향, 전통문화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지향, 공동체생활에 대한 지향 등이 지속적으로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주거환경에 있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양식 변화의 주요 경향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대립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개될 것으로 유추된다.

- 가족의 해체 ----- 가족생활의 중시
- 첨단화, 첨단기기 향유 ----- 수공예적인 것 지향
- 국제화 ----- 지역성
- 인공환경 ----- 자연지향
- 개인주의 경향 ----- 공동체/이웃 지향
- 개발욕구 ----- 보전 지향
- 시간전쟁 ----- 여가/레저 지향
- 패션범람 ----- 내것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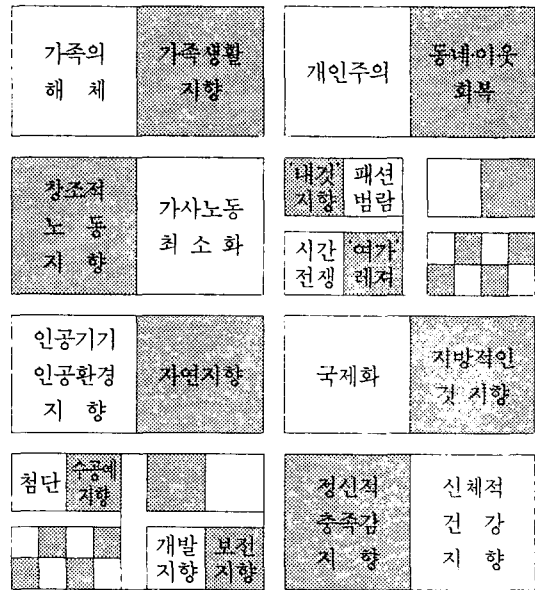


그림2. 미래의 주거환경에서 예상되는 생활요구
표출의 대립구조
(자료출처: 미래 주거공간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박인석)

4. 예견되는 21세기 주거환경의 형식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주택 특히 집합주택의 개발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간구성의 다양성과 외관의 변화가 과거의 집합주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두가지의 예견되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는, 주택에 대한 '다양화 욕구'의 표출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다양화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주거환경의 건설에 있어서 근대건축이 표방하는 금욕주의적인 생산성을 그

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주거환경은 가치관의 다양화,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외관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신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하나의 배경은 공급이론의 퇴조에서 찾을 수 있다. 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주택개발의 절대절명의 사명은 주택의 대량공급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정되어진 거주자는 평균화되고 일반화된 대중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40년대 유럽에서 제시된 판상주동(板狀住棟), 평행배치(平行配置)의 모델이 완전히 정착·보급된 극소수중의 한 나라라는 오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급을 위한 공급, 그리고 대량공급이 미덕이라는 시대적 인식은 변화되어갈 것이며 당연히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택건설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주거문화는 어떠한 형식적인 특성을 취할 것인가? 언급한대로 미래에 전개될 주거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혁신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본질적 요구에 순응하는 건축적 해법을 찾으려는 경향 또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20세기 초반에 있어서는 건축의 본질을 형태적 순수성과 생산성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에 두었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있어서 건축의 본질은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문화적 고유성과 역사성 그리고 건축의 논리적 개성화에 둘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21세기에는 주거건축을 근원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추구하는 환원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태도가 강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건축을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순응하는 진솔한 건축'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러한 건축은 피상적인 모방과 형태적 빌려오기에서 파생된 애매모호한 건축이 아니고, 반대로 역사성에 근간을 두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건축, 즉 과거를 조명하면서 혁신적 건축을 지향하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전제로 두고 21세기에 전개될 새로운 주거문화의 형식적인 특성을 유

추해보자.

21세기 주거환경이 취할 수 있고 또한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현상은 건축이 가지는 역사적 연속성의 회복이다. 건축의 미래는 그것이 아무리 혁신적인 것이라 하여도 즐기줄기 이어온 과거의 것에 비춰보면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소위 해체주의 건축이 역사의 맥락을 거부하고 모든 과거의 관계로부터 일탈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생명력이 길지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주거는 다른 건축형식과는 달리 매우 서서히 변화하는 속성이 강하다. 이것은 '거주한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이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도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거의 유형적인 연속성에 관해서 건축가 로시(A. Rossi)는 『도시의 건축(Architecture of the City)』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택은) 인간의 생활양식을 물리적으로 대변하고, 하나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변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 또한 19세기의 건축이론가 비올레 르 둡 (Viollet-le-Duc)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주택의 유형적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관습과 기호와 일상생활은 주택을 통해서 가장 잘 표출되는 것인데, 공간구성을 위시한 그 기본적 양식은 매우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환경의 유형적인 연속성은 20세기 건축문화의 전개와 함께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등지에서 오늘날 전개되는 주도적인 현상의 하나는 주거환경의 계획에 있어서 역사적인 연속성을 다시 회복하고 과거의 주거환경이 지니는 유형의 지속적인 성격을 새로운 주거환경의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 미래의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서 주도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의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서 추구될 것

으로 예견되는 새로운 경향의 두번째 특성은 지역성에 바탕을 둔 주거형태의 고유성의 모색이다. 20세기 후반의 건축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개별문화가 몰락되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가 속한 동양문화권의 경우는 서구건축이 가지는 형태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종속되어 문화적 고유성이 엄청나게 손상되었다. 한 문화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특수성의 개념에는 역설적으로 보편주의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평등하자면 동일해야하고 그러자면 개개문화의 특수성을 배제한 보편화가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모더니즘 이후의 건축형태가 지니는 보편적 속성은 어쩔수 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서구의 하위문화 또는 검증되지 아니한 포퓰문화에 의해서 타문화권의 문화적 현상들이 종속화되어 가는 것이다. 결국 환경이 시간적으로 다양화되어가면서도 모든 문화권에 있어서 다양화의 요소들은 보편화되고 일률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 또한 21세기의 건축문화가 극복해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지역성에 바탕을 둔 형태적 고유성은 결국 장소성과 관련된다. '공간'과 '장소'는 관념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간'은 근대건축의 기본적 관념인 추상적이고 균질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장소'는 의식적으로 인식되고 창출되어서 특정한 위치와 의미가 있는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장소는 '무명의 공간'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화적 독자성 속에서 이해되는 장소는 한 문화권이 오랫동안 공유하고 있던 공간구조를 통하여 재현된다. 흔히 문화적 산물로서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독자성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베를린 IBA의 계획안들이나 일본의 후쿠오카, 구마모토 등에서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주거계획들에서 이러한 관념을 강하게 읽을 수 있다. 또한 중국 북경의 역사적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형식을 현대에 다시 재현시키는 작업 또한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모두 '도시 속의 도시' 또는 '도시 속의 작은 영역'의 개념을 '유형'이라는 관념을 통하여 해석하고

있다. 한 문화권을 지배하는 공간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구체적 건축창조의 기반으로 삼는 접근 방식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건축창조의 원점에 두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주거환경이 취할 것으로 보이는 세번째의 양상은 주거형식과 도시맥락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가로표면의 연속성은 도시공간의 속성이었다. 그런데, 넓은 오픈스페이스에 우뚝 솟은 탑과 판상주동, 평행배치의 교의(教義)가 그것을 갈라놓았다. 과거 전통적인 도시주택은 거리의 외부와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가로의 파사드를 형성하였는데, 근대의 집합주택 이론이 그것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렸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80년대가 되면서, 유형학과 맥락주의 이론이 집합주택의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시가지를 형성하는 기본구조로서 가구형(街區型) 집합주택을 중요한 테마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가로가 지니는 표면적인 연속성과 내부에 공유공간을 지니는 가구(街區)는 다시 부활될 것으로 예상되는 커뮤니티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합주택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의 표면을 만들고 하나의 새로운 도시맥락을 창조하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이다.

21세기의 주거환경이 취할 것으로 생각되는 또다른 양상의 하나는 주택과 외부공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거의 본질적인 질의 회복에 수반되는 공동체 의식의 부활은 주호의 집합과 그것을 지탱하는 공간의 형태에도 새로운 흐름을 야기시킬 것이다. 과거에 일반화되었던 양상 즉 주호가 빈약한 공용공간과 매개되어 외부세계와 직접 접하게되는 양상이 서서히 사라져 갈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로공간과 골목이 가지는 공간적인 유효함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공유공간의 새로운 도입이 집합주택의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집합주택의 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공간의 도입과 함께 중정(中庭)이 집합주택에 부활하고 있다. 판상

주동, 평행배치가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집합을 유지하기 위한 명쾌한 공간화의 수단으로서 중정을 둘러싸는 집합주택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등을 위시한 서구 여러 국가의 작업에서도 영향받은 바가 크지만, 일본의 고유한 건축공간이 지니는 '둘러쌈'의 성격을 현대의 집합주택에 재현하려는 관념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주거환경이 취할 것으로 예견되는 또하나의 현상은 주거의 외적 다양화의 현상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목했던 것중의 하나는 근대건축의 금욕주의에 대한 이의제기였다. 이러한 이의제기의 커다란 핵심은 근대건축이 표방했던 무장식과 무표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주거환경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근자에 와서 서구와 일본의 많은 집합주택이 세련된 색채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집합주택의 표층(表層)이 가볍게 변하면서 각양각색의 표정을 지니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의 무덤덤한 형태 그리고 무채색의 벽은 일종의 「팔레트(palette)」로 변신하고, 가지각색의 색채와 표정을 가지는 집합주택들이 시가지에 면해서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건축가들은 집합주택을 일종의 쾌락적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람의 시각을 끌어서 팔아야 되는 상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축의 외부를 장식하는 경향에 있어서 역사적 건축의 외피를 직접 표출하고 결과적으로 역사적 이미지가 과도하게 강조된 상징주의는 20세기 후반의 건축현상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것은 미국적 역사해석의 결과였으며 상업주의와 결합하면서 오늘날의 건축적 잡종현상의 주역이 되었다. 상업건축이 표피적 상징주의를 취하는 것은 대중소비문화의 소산일 수 있지만, 주거건축이 그러한 경향을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결국 21세기의 주거환경이 추구하리라고 예상되는 형식은 건축이 지니는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주거의 원형적인 성격이 담긴 건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역사적·문화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주거건축은 그것이 비록 작아도 의미가 풍부한 건축으로 인지되어서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게 된다. 근자에 와서 많은 건축가들이 이러한 본질적·원형적 사고를 취하여 왔다.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건축의 표피적 홍수 속에서도 원형적 사고가 표출된 작업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우리나라 건축가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찾을 수 있다. 안도 타다오의 아주마(住吉)주택이나 승효상의 수졸당 같은 건축을 그런 범주에 포함시키고 싶다. 이 모두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원점이 되는 공간을 주택이라는 이름 아래 추구한 것이었다. 안도의 아주마 주택에는 일본이 지니는 문화적 독자성과 근대건축이 추구하는 보편화의 열망이 응축되어 있으며 문화적 맥락으로 도시를 해석하고 또한 그것에 대응하려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수졸당 또한 한국적 전통성이 담겨있으면서도 모더니즘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건축들에는 동양과 서양, 역사와 현재, 과거와 미래, 추상성과 구상성, 단순성과 복잡성 등 양극(兩極)의 속성이 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건축들은 미래지향적이며 이후의 건축이 취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들의 주택에서는 로지에에서 르 코르뷔제의 사보아 주택으로 이어지는 주거의 원초적 속성이 담겨있다.

이상과 같이 예견되는 주택에서의 새로운 변화의 경향은 역사적 연속성과 문화적인 고유성을 다시 회복하고 주거의 본질적인 속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다분히 복고지향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동시에 과거에 유행하던 획일적인 대량공급에서 탈피하여 개성화와 개별화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표현수단으로의 변화로 요약된다. 그것은 주거환경이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장소', '개성적 표현의 수단',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모여사는 보금자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생활의 장을 창출하려는 건축가들의 고뇌와 실험정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후기

산업사회가 지니고 있는 극단적인 대중소비와 상업주의의 경향이 스며들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표면적인 진지함 속에는 상품성이라는 알파람이 스며들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주거문화의 전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태도의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5. 맺으면서

근자의 건축이 불거리가 풍성한 건축이 되었고, 건축은 외관에 있어서 더욱 세련되어졌지만, 그것은 대부분이 특이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축가들의 강박관념의 결과일 뿐이다. 건축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명확한 개념도 없으면서 디테일의 세련화에 치중하거나 포스트모던적인 경향에 경도되어서 하나의 도상(圖像)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건축도 많다. AA풍이니, 해체주의 경향이니 하는 그럴싸한 간판을 하나씩 달고 등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기함과 의외성 그리고 디테일의 조작을 통해서 알파람 상업주의와 인기에 편승하는 자세가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진솔함'이 없는 건축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건축에 대한 본질적이며 원형적 사고가 결여된 탓이라고 보인다.

건축적 잡종현상은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을 취하고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며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다. 한 문화권 고유의 건축이 타 문화권의 건축과 섞이게 되고 이런저런 건축적 경향들이 끊임없이 교환되고 차용되다 보니 이제 문화적 잡종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잡종현상은 지역주의라는 커다란 전제가 수용되었을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

다. 한 문화의 주체성이 확립되고 특수한 장소와 역사공간에 뿌리를 내리려는 건축적 주체성이 우선한 이후에 서로간의 흡수와 교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맥락주의는 모더니즘 건축이 초래한 극단적 보편주의에서 벗어나자는 반동에서 생겨난 것이다.

21세기를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공업화된 사회, 모든 것이 첨단화된 사회, 고도의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사회를 연상하기 쉽다. 따라서 주거건축에서도 고도의 하이테크가 지배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에는 한 쪽으로의 발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는 역사적인 흐름을 선적(線的)인 것으로 보아서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본다. 시간은 부단히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역사는 원(圓)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서 돌고도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역사는 회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발전과 진보는 원점으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양적 관점에서의 진보는 근원적인 것, 역사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표피주의적 개성화의 경향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태도가 된다고 생각된다. 21세기의 건축은 원초적인 장소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미가 풍부한 건축, 역사성에서 시작되었으면서 표피에서는 알파람 역사를 표출하지 않는 건축, 역사의 현대적 의미를 인지할 수 있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건축, 도시의 고유한 구조에서 파생되고 동시에 고유의 도시구조에 순응하는 건축, 이러한 건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